



ANDREW BONAR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는 복음

The Gospel Pointing to the Person of Christ

앤드루 보나르 지음

최용진 옮김

판권

원서명	<i>The Gospel Pointing to the Person of Christ</i>
원저자	앤드루 보나르 (Andrew Bonar, 1810-1892)
원저 저작권	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
한국어판 제목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키는 복음》
번역자	최용진
번역 저작권	한국어 번역 © 2026 최용진

이 책의 원저는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한국어 번역문에 대한 저작권은 번역자 최용진에게 있습니다.

서문

이번 새 판에서는 오타자를 수정하고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더 충실하게 보완한 것 외에는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언제나 함께 연결하여 바라보는 중요한 주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데 있다. 이는 가장 견고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경험에 그 중요성을 분명하게 증언해 온 주제이다. 토플레이디 (Toplady)는 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설교자가 된 토머스 콜 (Thomas Cole) 씨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인용한다. 그의 흥미로운 고백을 들어 보자. “나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다만 그 은혜를 충분히 얻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의 자비보다 내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찾게 되었다. 내 생명이 그 은혜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나는 마침내 복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복음에 이르렀을 때, 나는 그 안에서 다시 율법을 만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나는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어 버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회개, 검비함, 믿음, 기도와 같은 복음의 의무들 위에 나 자신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 나를 복음으로 이끌어 주었던 은혜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복음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믿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셔서 인간 구원의 위대한 담당자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연구하게 하셨다. 그리고 참으로 이때 나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셨다. 나는 그분의

자비 안에서 너무도 큰 자비를 보았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무도 큰 사랑을 보았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너무도 큰 은혜를 보았다. 그것을 무엇에 비유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로부터 어떻게 안전함을 얻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드러난 은혜의 광대함과, 자비의 충만함과, 의의 무한함은 내 평생의 모든 날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글래스고, 1858년 6월

제1장

그리스도의 인격이 기쁜 소식의 본질이라는 사실

복음은 처음부터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다가올 때마다 중대한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마치 마하나임 전투 후 다윗에게 달려와 “모든 것이 잘되었습니다!”라고 외치던 전령과 같았다. 그러나 아히마아스가 전한 소식의 핵심이 단순히 승리 자체였을 뿐,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던 것처럼, 구약이 이 땅에 선포한 기쁜 소식도 그러하였다. 아직 그 내막을 전해 줄 구시가 필요했다. 그리고 실제로 구시는 아히마아스의 뒤를 따라 도착하여 승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그 승리의 핵심은 군대를 이끌던 장수가 친히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에 있었다. 이와 같이 신약은 구약을 뒤따라 달려와 이렇게 선포한다. “기쁜 소식이다, 오 땅이여!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율법을 만족시키셨고, 그분의 왕좌를 굳게 세우셨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은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다. “지극한 영광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이 외친다.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음성은 오직 그분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만을 말한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모든 폭풍을 견뎌 낸 그 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아래의 깊은 샘들이 터져 나오는 충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방주 안에는 죄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이 인격을 더욱 밝히 드러내 보이실수록, 불멸의 영혼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보화들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죄인이 이 영광스러운 인격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했다면 그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한다. “너희가 나의 이전 행실을 들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인격 위에 자신의 구원을 의탁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 믿음에는 지적인 작용이 있다. 곧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는 웅장한 궁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불과하다. 그 길은 영혼을 그 모든 증언이 가리키는 바로 그 인격에게로 인도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단순한 명제를 믿는 일이 아니다. 명제는 오직 이해력에만 관계한다. 아무리 중요한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증언의 본질이신 그분께로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한때 육신적이었던 우리의 이해를 밝히셔서 참된 진리를 보게 하심으로써 바로 그 일을 이루신다. “믿음은 그 뿌리가 이해력 안에 있지만, 그 대상을 붙드는 의지 안에서 역사한다.” “믿음은 머리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 이르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는다.”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정신적 태도가 아니라, 진리를 통하여 생겨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태도이다.” “영혼은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을 붙든

다. 그분은 믿음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닐지라도 가장 중심적인 대상이다.”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구주에 대한 증언을 믿는 것은 건물의 현관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현관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그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 계신 거주자를 만나게 된다. 그분은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타락한 영혼의 절박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치료가 필요하다. 첫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느껴야 한다.

죄인의 영혼은 본성상 죄책을 짊어지고 있다. 원죄의 죄책과 자범죄의 죄책이 그 위에 놓여 있다.

이 죄책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이 장벽이 제거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실 수 있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열린 품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양심이 견고한 안식을 얻는 것이다. 둘째, 영혼에는 감정과 정서와 애정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양심뿐 아니라 마음도 안식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은 충분히 크고 풍성하며, 그 본성에 완전히 알맞은 대상을 발견할 때 안식을 얻는다.

마음의 모든 능력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모든 감정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할 때 비로소 안식을 얻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필요는 모두 하나님-사람 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발견할 때 충족된다. 바로 그분 안에서 이 이중의 치료가 발견된다. 성령께서 하나님-사람 되신 중보자 안에 쌓여 있는 보화를 보게 하실 때, 양심은 자신의 평안과 안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그분의 순종과, 율법이 받은 모욕에 대하여 그분이 드리신 만족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사람 되신 그리스도 안에 가득한 동정과 부드러움과 형제 같은 사랑을 보여 주실 때, 인간은 마침내 자기 마음이 그토록 갈망하던 대상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 대상 위에 평안히 쉴 수 있게 된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생명의 떡”을 맛본다. 이때 비로소 그는 구주를 자신의 양식과 음료로 삼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그 두 본성을 사용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중보자의 인격 안에서 자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의 순종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의를 가져오신 구주 안에서 참된 육신과 피를 발견하게 될 때,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본성의 모든 부분이 고려되었다. 내 양심뿐 아니라 내 모든 감정과 능력을 위하여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다. 그분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분의 피는 참된 음료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복음의 본질이며, 또한 언제나 복음의 본질이었음을 자세히 보여 주는 데 있다. 크나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두 그 인격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모든 초청과 부르심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끈다. 복음을 믿어도 된다는 모든 근거 역시 사실상 하나의 증언이다. 그 증언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시선을 그 인격 자체에게 고정시키고, 그분의 마음과 능력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확신하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본다는 것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분을 본다는 것은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고 영광스럽게 구원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두신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분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잃지 않으시면서도, 죄인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나아오실 길을 마련하신 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일은 이미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도 중요하고, 아직도 더듬거리며 그분을 찾고 있는 죄인들에게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통해 양쪽 모두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곧,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성도는 이곳에서 은혜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곳에 더 오래 머물수록 더욱 복을 누리게 된다.

반면에 구원을 찾고 있는 죄인은, 추상적인 진리나 차가운 교리적 진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인격을 상대하게 될 때 자기의 모든 혼란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오라, 이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내가 간청한다. 오라. 내가 권한다.” 여기 우리 앞에는 두 존재가 서 있다. 한쪽이 다른 쪽의 말이나 선언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두 존재가 서로 마주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영과 영의 만남이다. 사람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직접 듣기 위해 나아오는 것이다.

번연은 『천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집을 벗어 버린 뒤 기쁨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다.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아니, 그보다 더욱 복된 분은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신 바로 그

사람이시로다. 또한 번연은 『무지한 자를 위한 가르침』에서 다음과 같은 문답을 소개한다. 문. 나와 같은 가련한 죄인이 장차 임할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답. 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가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문.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답.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답.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문. 왜 그분을 믿어야 합니까? 답.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다.

문. 그분은 어떻게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답. 아버지께서 그분을 정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을 정죄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문. 그분은 어떻게 세상에 오셨습니까?

답.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 육신 안에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마귀와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문.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까?

답. 없다.

천하 인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또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또 말씀한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너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나로 하여금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할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답. 너를 의롭다 하기에 충분한 무한한 의가 그분 안에 있으며,

너를 거룩하게 하기에 충분한 한량없는 성령이 그분 안에 있다.

문.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까? 답.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너에게 내어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다면,

그 모든 것은 네 것이 된다.

문.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어떻게 내게 주십니까?

답. 마치 부자가 가난한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 듯이,

아무 값 없이 거저 주신다. 그러므로 너도 거저 받아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2장

복음은 타락 이후부터 사도 시대에 이르기 까지 언제나 구주의 인격 안에 있었다

신약성경에서는 복음을 이루는 진리들을 가리켜 종종 “비밀”이라고 부른다. 이 비밀, 곧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진리”의 핵심은 구주의 인격에 관한 것이었다. 그분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가 밝혀지자, 그 동안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다른 진리들도 즉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제야 왜 피가 속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다. 피는 쏟아진 생명을 의미하며, 그 쏟아진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모든 제사에서 흘려진 피는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내어 준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피 흘림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는, 그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이며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가 밝혀질 때에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족장들과 옛 성도들은 끊임없이 살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도록 인도받았다.

그분은 그들의 복의 근원이셨다. 그들의 손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일로 바빴지만, 그들의 눈은 언제나 그 제사 너머에 계신 한 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분은 장차 오셔서 이 모든 예식을 밝히 설명하시고, 그들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실 분이셨다. 그들의 생각은, 비록 희미하고 불완전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모형들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오실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일을 가리켜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 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옛 성도들은 장차 오실 분의 인격이 자신들이 지켜 온 모든 의식과 규례의 의미를 밝혀 줄 것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베드로는 구원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구원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았던 선지자들이 특별히 주목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을 영광” 이었다고 말한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사실을 보여 준다. 주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그들 가운데 계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처음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구주의 약속이 선포된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의 관심은 이 인격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실지를 알고 싶어 하였다. 구약 성도들의 처지는 마치 유배지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같았다. 그들은 왕으로부터 귀향을 허락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자신들을 그 황량한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데려다 줄 수단이 무엇인지는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망원경으로 먼 곳을 살펴본 사람이 그들 가운데 와서 수평선 위에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점 하나를 가리키며 말한다. “저것이 바로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보내진 배입니다.” 그들은 이미 왕의 용서와 선의를 암시하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그 모든 약속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거였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마다 그 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점이 실제로 배

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질수록 기쁨도 더욱 커져 갔다. 그 배에 달린 깃발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보여 줄수록 그들의 확신도 더욱 커졌다. 그들은 왕의 인장이 찍힌 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편지에는 그 배가 해안에 도착하면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배의 도착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겼다. 그리고 자신들의 귀환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배 안에 있다고 믿었다. 구약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하였다. 그들은 저 먼 바다 위의 작은 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옅은 이전의 족장들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그 배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였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 후에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리게 되었고, 유다 지파에서 나올 “실로”라고도 불렸으며, “다윗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라고도 불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일어나 외쳤을 때 그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스가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리켜 “내 짝 된 사람” 이라고 부르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모습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제 그 배는 기쁨 가운데 훨씬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말라기가 외쳤을 때,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임하리라.” 하나님의 쫓겨난 백성들의 소망은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계시하시던 초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시가 자연스럽게 구속자의 인격을 중심으로 두도록 계획하셨다. 그들에게는 구속 자체보다도 구속자가 더욱 중요하였다. 그들은 이 노아가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할지 잘 알지 못하였다. 그가 어떻게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물과 위에서 쏟아지는 홍수 가운데 방주를 인

도할지 알지 못하였다. 또한 그가 이 거친 물결을 지나 마침내 아라랏이라는 낯선 항구에 어떻게 도착하게 할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었겠는가? 그들이 정말로 자신을 이 노아에게 맡기고 있었고, 그의 사명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다면 말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던 시절의 제자들과 추종자들도 상당 부분 이와 같았다. 그들은 주님의 사역에 대한 세부 사항을 놀라울 만큼 적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로 그분의 인격에 매달려 있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암시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목자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였다.

그들은 이 목자가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할지 알지 못하였다. 그가 어떻게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 낼지, 또 하나님의 진노라는 불타는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게 하실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 위에 안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올바른 인격에게 붙어 있었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에 자신을 맡겼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의 구원에 대한 소망의 본질이 아니었겠는가? 그는 마치 나일강의 근원에 도달하여 온 세상을 적셔 온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샘을 바라보는 여행자와 같지 않았는가? 그 노성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 그는 외쳤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베들레헴에서 천사가 전한 복음도 결국 그분의 인격에 관한 소식이 아니었던가? 그 복음을 듣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천사의 말은 이것이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이것을 가리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라고 불렀다. 동방박사들이든 목자들이든,

마리아와 요셉이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든, 안나와 시므온이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은 이 인격에게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을 구원하실지는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인격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그 후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 그의 설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린양” 을 가리키는 설교였다. 그의 손가락은 언제나 사람들을 그분께로 향하게 하였다. 모든 좋은 소식은 저기 계신 그분 안에 있다. 모든 복은 여러분 가운데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인격 안에 있다.

요한은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증언하였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야말로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이 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의지하고 있는 그 인격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씨, 여자의 후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담겨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없겠는가? 우리의 잔이 얼마나 충만해질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처음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특히 그 사실이 새롭게 그들 앞에 폭발하듯 드러났을 때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이 소식은 사람들에게서 사람들

에게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메시아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에 대하여는 여전히 많이 알지 못 하였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굳게 그분의 인격에 매달렸다. 그들의 조상들이 구름기둥을 따라가며 그 안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앞으로 그분께서 자신과 자신의 길에 대해 무엇을 더 나타내 보이실지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런 질문을 받았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신 이 구주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 이 질문을 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마나 위대한 발견인가!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은 반드시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결코 불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실 수 없다. 그분의 구원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진 완전한 구원이다. 죄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우는 구원이다. 베드로는 또 다른 자리에서도 같은 고백을 매우 힘있게 하였다.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그는 이 인격에게 굳게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인격이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고난과 수치와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곧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비록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함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단호하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러한 일이 자기 주님의 존엄과 영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무지가, 또는 그 사역에 대한 오해가 그분의 인격에 대한 오해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분의 인격을 오해하지 않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분의 인격은 광산 자체이다. 그분의 사역은 그 광산이 채굴될 때 밖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보화들 가운데 하나이다. 유대인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참된 구주를 알지 못할 수 있었다. 그가 참된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했다. 만일 메시아가 단지 뛰어난 사람에 불과하다면 죄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소시니안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처럼 단지 특별한 인간일 뿐이라면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는가? 또한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장 높은 천사의 자리에 있는 존재일 뿐이라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원의 줄을 그토록 멀리까지 펼치실 수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매우 엄숙하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위로부터 왔다” 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나 혼자가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트집을 잡으며 따지던 바리새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엄숙하고도 위엄 있는 음성으로 선언하셨다. “너희가 내가 말한 바로 그 인격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도 때때로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옛 성도들도 약속된 후손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충분히 알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인격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실 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약속된 구원 속에 계시다는 희미한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 앞에 계시된 구주의 신성을 거부하거나 경시한 사람은 결코 없었다는 것이다.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 자신이 구주라는 사실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였다. “나는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십자가의 비밀, 죽음은 한동안 장막이 되어 저 첫 가족의 눈을 가렸지만, 그들은 그분을 바라보고 믿었으며,

그분을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다.

모든 시대에 성도들의 소망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마음을 주님께 두고,

또 주님께서 보내실 그분께 두는 것, 이것이 옛 신앙의 핵심이요 알맹이였다. 우리가 아가서에서 신부가 사랑하는 이를 노래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거듭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거기에서 바로 구약 시대 신앙의 모습을 듣게 된다. 그 사랑하는 이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분의 인격에는 아직 베일이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이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강한 애정이 흐르고 있다. 그 이유는 베일 뒤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자기 사랑하는 이를 의지하고 올라오는구나.”

이 말씀은 분명 족장 시대와 유대인들의 신앙을 그려 주는 그림이다. 마치 로마의 카타콤 무덤들에서 자주 발견되는, 목자의 어깨 위에 메어 있는 양의 그림이 신약 시대의 신앙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한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는 것이니.”

요한은 분명 이 말을 통해 성도들이 누리는 복음의 충만한 특권을 말하고 있다. 그는 이것이 성도들을 세상과 구별하는 특징이라고 말한다. 곧 약속된 후손이 이미 오셨으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무렵 교회는 훨씬 더 밝은 빛 가운데 서 있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뜨거운 감격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일을 기록한다. 또 마르다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주는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선언한 일도 기록한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인격에 대해 더욱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기쁜 고백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그는 수백 마일이나 먼 길을 여행해 왔다. 왕비의 총애를 잃을 위험도 감수하였다. 높은 지위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깨어난 영혼의 안식을 찾고자 예루살렘의 장엄한 절기들 가운데까지 가 보았지만 헛되었다. 그런데 한 낯선 사람이 그의 곁으로 보내졌다. 참된 복음 전도자였다. 가자로 향하는 황량한 사막 길 위에서 그의 마차가 천천히 굴러가고 있을 때,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다. 거기에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 같은 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낯선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었다. 어떻게, 왜, 언제, 그분이 죽음으로 인도되셨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였다. “그 어린양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순간 에디오피아 사람의 얼굴에는 얼마나 놀라움과 기쁨이 번쩍 스쳐 지나갔겠는가! 그는 성령의 가르침 아래 있었다.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다. “이제야 내 영혼이 쉼 곳을 찾았구나! 이제야 내 짓눌린 마음이 안식할 수 있구나!”

어린양이신 그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는 겨우 한 사람이 발을 디딜 만큼만 물 위로 솟아 있는 작은 바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끝을 볼 수 없는 넓은 대륙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그는 얼마나 큰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하였겠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잘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 많이 말한다. 거대한 반석 자체보다 그 반석이 만들어 주는 그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사도들의 서신은 그렇

지 않다. 그들은 사역을 일하시는 분과 분리하지 않는다. 항상 사역을 그분 곁에 두고, 그분을 사역 곁에 둔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라고 말한다. 또한 이어서 말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또 로마서 5장에서는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곧 이어 덧붙인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느니라.” 또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고 말하며,

또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 고 말한다.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곧 우리의 대표이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사도의 논증 전체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 사도가 에베소서 1장처럼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하여 자유롭게 설명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 고 말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인을 영화로운 나무의 그늘 아래로 인도한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그 그늘만을 보여 주지 않는다. 오히려 끊임없이 그 나무 자체를 바라보게 한다. 그 위엄 있는 모습, 그 영광스러운 성장, 늘 푸른 잎사귀, 사방으로 넓게 뻗어 나간 거대한 가지들을 보여 준다. 그리고 바

로 그렇게 할 때, 그 여행자는 단순히 그 나무 아래 누워 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새 힘을 얻게 된다. 사도는 말한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즉시 덧붙인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면서도 언제나 그리스도 자신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다. 성찬 역시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인격에 고정시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성찬은 그분의 죽음을 말한다. 또한 그 죽음으로 확증된 새 언약을 말한다. 그러므로 죄 사함과 거룩함,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복을 말한다. 그러나 누가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선물만 바라볼 수 있겠는가? 거룩한 성찬 속에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분의 인격에게로 인도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성찬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진리는 바로 그분과의 연합이기 때문이다. 새 언약을 확증하기 위하여 자기 피를 주신 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자기 자신을 주신 분, 바로 그분과의 연합이야말로 성찬의 본질이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선포한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죽으신 그분 자신을 향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육체적 고난과 영혼의 고통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고난당하신 그분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 우리는 우리 죄가 그러한 치료를 필요로 했음을 생각한다. 우리의 상처가 그러한 약을 필요로 했음을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눈은 우리를 낮게 하시는 그 인격 위에 고정되어 있다. “그가 오실 때까지” 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향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고난의 날만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 그 영광의 날까지 시선을 옮기게 한다. 우리는 상하신 모습을 뒤돌아보는 동시에, 장차 “그 아름다우신 왕” 을 바라

보게 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기뻐하신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던 날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은 단지 그분의 사역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단순히 행해진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는 말씀과,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는 말씀은 물론 그리스도의 사역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분 자신과 분리된 사역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장 높은 영광을 돌리셨고,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 인격을 높이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언제 가장 크게 우리를 복 주실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선물들 자체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선물을 베푸시는 분의 마음을 보여 주는 증거들로 바라볼 때이다. 그 선물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만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께로 나아갈 때이다. 병원을 생각해 보라. 그곳에는 넓은 시설이 있다. 풍성한 약품이 있다. 충분한 음식이 있다. 수많은 환자들의 필요를 채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분명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 병원을 세운 설립자이자 의사 자신이 직접 병실마다 다니는 것이다. 모든 병상 곁에 몸을 굽히는 것이다. 친절한 말을 건네고,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병원을 칭찬하면서 의사를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성령께서도 구주의 은혜들만 칭찬하시고, 그 결과 당신이 구주 자신을 놓쳐 버리도록 내버려두시겠는가?

제3장

그리스도의 인격이 죄를 깨닫고 구원을 적용받으려는 영혼에게 주는 도움

초기 교부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신학”이라는 말을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들에게 신학이란 곧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요한을 “신학자”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요한이 육신이 되신 말씀에 대하여 가장 충만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이 교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은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그분을 아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원리를 따라 이렇게 주장한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를 아는 데서 얻어진다.

종교개혁 시대에 순교사 저술가 폭스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선물도, 어떤 덕도, 어떤 행위도, 어떤 공로도, 그 밖의 어떤 것도 구원의 원인이나 일부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관계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렇게 말하였다. 믿음 자체도 단지 인간 마음 안에 있는 하나의 성질이나 행위로서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믿음이 가진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올리버 크롬웰 역시 플리트우드 장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완전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를 완전한 안식과 평안이신 그분께로 데려갈 뿐이다.”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하여,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를 아는 일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왔다.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든 그 중요성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1. 그리스도의 인격은 죄의 참된 악함을 깨닫게 해 준다 죄를 바르게 이해하면 구주의 인격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참이다.

구주의 인격을 바르게 이해하면 죄를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소시니안들과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죄를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죄가 영원한 형벌과 무한한 진노를 받을 만한 것임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인간 본성의 엄청난 부패함과, 날마다 하나님께 범하는 무서운 죄들 때문에 양심의 경고를 받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왜 자신들에게 신적인 구주가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죄인들의 무수한 죄를 대신하여, 무한한 진노를 담당하실 수 있는 구주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만일 죄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보증인이 직접 개입하셔야 했다면, 죄는 분명 엄청난 악일 것이다. 만일 죄를 용서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분 자신이 죽으셔야 했다면, 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미움받을 만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로부터

이런 교훈을 얻는다. 죄의 무서움을 올바르게 느끼고자 한다면,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만족 외에는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 가톨릭 신자는 마리아의 아들보다 마리아 자신에게 더 자주 시선을 돌린다. 그런 사람은 죄의 진정한 본질도, 율법의 엄격함도,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피조물의 공로를 통해 용서를 얻으려 한다. 또한 수많은 성인들의 중보가 자신들을 위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 아래 죄를 참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로부터 오지 않는 평화가 얼마나 불충분하고, 얼마나 불만족스럽고,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깨닫게 된다. 그들은 죄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악이라는 사실을 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배운다. 죄인을 대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심연 같은 악을 보게 된다. 또한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하셔야만 잠잠해질 수 있을 정도로 진노를 요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또 한 번 시선을 돌려 보라.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막 첫 숨을 내쉬는 갓난아기를 바라보라. 그 작은 영혼 안에도 죄가 있다. 물론 그 죄는 사십 년이나 칠십 년을 살아온 죄인들의 죄와 비교하면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아기의 죄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 외에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악이다. 만일 그 아기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죽음에 내어 주셔야” 한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를 떠올려 보라. 당신이 보기에 가장 작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죄를 선택해 보라. 그러나 그것 역시 죄이다.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고 당신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한다. 하나님 아들께서 아버지의 품에서 일어나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셔야 한다.

그보다 적은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보다 적은 것은 전혀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죄의 심연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천사의 힘으로는 당신의 단 하나의 죄에 대하여 쏟아질 진노의 무게조차 감당할 수 없다.

또한 천사의 사랑으로는 당신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는 시험을 견딜 수도 없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문제이다. 죄는 신비할 만큼 두렵고 엄청난 악이다. 이 모든 교훈은 우리가 단지 용서라는 복만 바라보지 않고, 그 용서를 가져오시는 분의 인격을 바라볼 때 배우게 된다. 만일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구원을 단지 이미 완성된 사역으로만 말한다면, 혹은 가장 악한 죄인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문이라고만 말한다면,

혹은 모든 죄인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초청이라고만 말한다면, 복음이 죄에 비추어 주는 밝은 빛을 놓쳐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결해 보라. 특히 그 인격의 신성을 바라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입고 행하신 사역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 계신 모습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늘의 이삭의 피를 흘리신 전능하신 사랑 때문에 열린 구원의 문이 있다. 여기에 가장 악한 죄인에게도 주어지는 자유로운 초청이 있다. 그러나 그 초청이 자유로운 이유는, 오신 구주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실 수 있었고, 마지막 한 톨까지 값을 지불하실 수 있었다. 이 사실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빛이 죄 위에 비추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무한한 악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악이다. 죄에 대한 진노의 열기는 너무나 뜨겁다. 만일 나와 그 진노 사이에 드리워진 그 그림자가 크고 넓게 펼쳐진 거대한 반석의 그림자가 아니었다면, 내 주변의 공기는 여전히 풀무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을 것이다. 죄가 내 한 사람 위에 올려 놓은 짐은 너무나 무겁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 있는 돌로 들어 올려져 기초석 위에 놓이기 위해서는, 그 기초석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했다. 그렇다면 죄가 만들어 낸 상처는 얼마나 깊은 상처였겠는가? 오직 이러한 약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었다. 오 내 영혼아! 너는 넘쳐흐르는 강물 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센 물결을 막아 낼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 곧 네 본성을 입으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막으실 수 있었다. 너에게는 온전한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어야 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2. 구원의 적용 죄인은 자신이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분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불가능한 장애물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과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님의 인격 앞에 서는 순간 녹아내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구주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에 대하여 낮은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낮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적은

것만 기대하게 될 것이다.” 이 진리는 매우 넓게 적용될 수 있다. 죄를 깊이 깨달은 영혼, 아니 조금이라도 죄를 실제적인 문제로 깨달은 영혼은 하나님-사람 되신 그리스도의 인격 외에는 자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다. 번힐 필즈에 묻혀 있는 브래드퍼드 목사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였다. 그는 한동안 아리우스주의자였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던 중,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는 죄의 실제적인 힘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죄가 셀 수 없이 많을 뿐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악하다는 사실도 보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한다. “내가 처음으로 위로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때였다. 이제 나는 그분의 신성을 나의 모든 확신의 기초로 보게 되었다.”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사실 안에서만, 그 속죄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충분히 값진 것일 수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또한 오직 그 사실 안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진 희생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으며,

그 희생이 가장 넓은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교리를 입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깊은 영적 고민 가운데 있는 영혼은 흔히 살아 계신 그분 자신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분의 길을 생각한다. 그분의 계획을 생각한다. 그분의 사역을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그분 자신에게는 눈을 감고 있다. 이제 그런 영혼이 한동안이라도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상대하도록 인도받는다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인격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신다면,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다. “나는 어떻게 저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한 영혼이 걱정하며 말한다. 그가 가리키는 산은 선택의 교리이다. “나는 어떻게 내가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은 말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베드로나 바울, 막달라 마리아나 베다니의 마리아를 위해 흘려진 것과 똑같이 나를 위해 흘려졌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그 피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더욱 대담하게 말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죽으실 때 모든 죄인을 똑같이 마음에 품으신 것이 아니라면, 구원을 찾는 죄인이 안식할 수 있는 충분한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순례자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그들은 가능하다면 선택이라는 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 산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그 산 앞에 서 계신다. 하늘에 닿는 그 영광스러운 산 앞에 말이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상대해야 할 분은 그 산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단순하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로 부르신다. 와서 이 인격을 보라고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영혼을 짓누르는 짐을 지고 저 산을 오르느라 지친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되면 선택에 관한 모든 어려움은 당분간 옆으로 치워진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까지 말이다. 그리고 그분은 때가 되면 아버지에게 대하여 분명히 보여 주실 것이다.

선택에 관한 모든 어려움은 결국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진다. 그 보편적 초청과 선택받은 자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조화시키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주님께 맡겨 두라. 그리고 말씀이나 교리나 명제가 아니라, 살아 계신 인격이신 구주를 상대하라. 그렇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어쩌면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구속받은 자들 가운데 한 자리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말하라. 그러나 가서 직접 보라. 그리스도의 인격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자신을 던져라. 실제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자신을 던진다는 것은, 선택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는 죄인을 거절하시겠는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를 위하여 지불할 값이 내게 부족하다.” 그분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가 설 기초가 충분히 넓지 않다.” 그분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게는 너를 불쌍히 여길 만큼의 사랑이 없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 자리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험해 보라. 죄인을 영

접하시는 분으로서 그분께 호소하라. 그리고 그분께 말하라. “주님, 바로 그런 죄인이 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대했던 일을 결코 잊지 말라. 그 사건은 마치 지금 당신과 같은 영혼을 위해 특별히 기록된 것처럼 보인다.

그 여인은 소망과 기대를 품고 주님께 나아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 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마치 선택이라는 높은 산이 드리우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그녀 앞에 가져다 놓는 것 같았다. 그 말씀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너를 위한 자리는 없다.” 그녀의 경우에는 오늘날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나도 그 수에 속할지 모른다” 라고 말할 여지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다. 오히려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만일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하듯이, 특별한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 두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인격에게 자신을 던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주님께 간청하였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주여, 옹호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안에 측량할 수 없는 자비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우리에게 하나의 증거를 남겨 주었다. 죄인이 살아 계신 구주의 인격에게 나아갈 때, 그 죄인은 즉시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은혜로운 대화가 시작된다. “오라, 이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대화는 결코 정죄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면으로 끝난다. “너희 죄가 주

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당신은 이것을 믿는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이 영원 전부터 당신을 자기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처럼 선택의 문제에 걸려 넘어진 일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혼을 사물이 아니라 인격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가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가 된다. 순례자는 험준한 산을 마주한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힘겹게 산을 오르기 전에, 그가 오랫동안 애써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분의 거처를 먼저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담대히 이 질문과 맞서라.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오직 한 분께로 인도할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이다. 그것만이 참되고 확실한 해답에 이르는 길이다. 그 질문은 당신을 생명책으로 보내지 않는다. 오히려 생명책을 기록하시는 어린양께로 보낸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묻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분이 죄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바로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안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은 많은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있다. 그들의 믿음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과 비슷하다. 마치 양이 목자의 어깨 위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 목자가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목자 자신을 신뢰한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두려움을 제거하실 때 종종 자신의 인격을 새롭게 드러내 보이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동안에도 그랬다.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두려움을 없애셨다. 그 유명한 폭풍의 밤을 생각해 보라. 바람과 파도가 배를 뒤흔들고 있었다. 짙은 어둠이 달과 별을 모두 가려 버렸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외쳤다. 혹은 천사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존재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들은 오히려 천사를 보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더욱 느꼈다. 또한 천사의 동정이 얼마나 깊은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그 순간 그들의 영혼에는 평안이 찾아왔다. 마치 조금 후 호수의 수면이 잔잔해진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평안이 먼저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다. “나다.” 나는 여기 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손뿐 아니라 그분의 마음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분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었다. 사람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살아 계신 예수님, 인간적인 동정으로 가득하시면서도 동시에 신적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말이다. 부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라. 제자들은 얼마 전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므로 아직 마음에 완전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치 죽음의 장막 너머에서 온 것 같은 한 존재가 다락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저편 세계에서 오는 소식은 자신들에게

좋은 소식일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룩한 천사가 왔다면, 그는 아마 책망이나 심판의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신분은 주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건네던 평범한 인사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의 시선을 자신의 인격으로 향하게 하셨다. 자신이 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셨다. 자신이 참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셨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 손은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 수없이 만지셨던 손이었다. 그 손은 제자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들 위에 얹어졌던 손이었다. 그 발은 유대와 갈릴리의 길 위에서 지치도록 걸으셨던 발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무덤의 차가운 돌 위에 놓였던 발이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마치 마지막 만찬 때 하였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것 같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참된 인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 주셨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셨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하나님-사람이셨다. 그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생선과 벌집 꿀을 달라고 하였고, 그들 앞에서 친히 잡수셨다. 제자들이 그분이 정말 주님이실 가능성 때문에 너무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오히려 그것을 믿기 어려워할 정도였다는 사실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바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 준다. 참된 안식이 어디에서 발견되는지를 보여 준다. 의심과 불안이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보여 준다.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단순한 길이 무엇 인지를 보여 준다. 그 모든 것은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처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사람 되신 그리스도의 인격은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수많은 진리를 선포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영혼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치게 된다. “나의 모든 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돌로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대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빌립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셨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다. 자신의 인성을 그대로 드러내셨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나는 인간의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 인간의 본성을 입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만져 보고 확인하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이 우물에서 길어 마셔라. 이 안에는 베드로만을 위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돌로매만을 위한 사랑도 아니다. 다대오만을 위한 사랑도 아니다. 빌립만을 위한 사랑도 아니다. 오히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구원받을 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

이 우물에서 마셔라.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말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구주를 거절한 것, 그분을 하찮게 여긴 것, 상상 속의 어려움들을 핑계 삼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장차 당신 영혼에게 “죽지 않는 벌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한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보다 못한 것에 만족한 사람 역시 같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단지 명제에 만족한 사람, 단지 진

술에 만족한 사람, 단지 교리와 진리에 만족한 사람, 그러면서 그 모든 교리와 진리가 가리키는 바로 그 인격을 마음으로 품지 않은 사람 말이다. 그 역시 영원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는 마치 구름의 품 위에 누워 쉬려는 사람과 같다. 혹은 바다 거품의 흰 포말 위에 몸을 누히려는 사람과 같다. 실체 대신 그림자에 만족하는 영혼은 얼마나 비참한가! 모든 사람을 향한 어떤 막연한 사랑과 자비가 있다고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영혼, 의와 도덕적 통치가 어떤 방식으로든 옹호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영혼,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이라는 인격적 대속자를 통하여 마련된, 충분하고도 넘치는 속죄와 구원을 붙들지 않는 영혼은 얼마나 불쌍한가!

장차 임할 진노가 무엇이기에, 그 진노를 죄인들에게서 돌이키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야 했는가?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라. 그렇게 오신 분을 죄인이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멸망이 가능하겠는가? 저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이 열려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아직도 자리가 있다.” 저기에는 므낫세조차 다 헤아리지 못한 사랑의 바다가 있다. 저기에는 바울조차 끝까지 올라가지 못한 사랑의 하늘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다. 우리 각 사람이 직접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다. 바로 그 품 위에, 우리 역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다.

제4장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가져오는가

누군가가 알프스를 보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본 것은 눈으로 힘들이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바위 언덕 몇 개뿐이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가 실제로 알프스를 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알프스는 그런 언덕이 아니다. 그것은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이 솟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참으로 본 사람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본 사람이다. 그리고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은 사람은 구주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본 사람이다. 사실, 참으로 깨어난 영혼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매우 큰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원은 구주의 인격을 발견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그때 영혼은 노래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단 하나의 죄만으로도 평안은 영혼을 떠난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가 바로 그 증거이다. 단 하나의 죄만으로도 영혼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모든 죄인의 양심 속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재료가 쌓여 있겠는가? 아간은 금덩이와 바벨론 옷을 장막 아래 숨겨 두고 있을 동안에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광야에서 불어오는 폭풍이 장막을

흔들어 그 숨겨 둔 죄를 드러낼 것처럼 보이는 순간, 그는 공포에 사로잡힌다. 죄인의 양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바로 그러하다. 지금은 공기가 잔잔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폭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누가 인생의 장막을 뽑아 버릴 폭풍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 누가 모든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누가 죄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한 도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 달빛 아래에서 묘지처럼 고요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침 해가 떠오르면, 잠들어 있던 반역자들이 깨어나 혁명의 광기를 터뜨릴 수도 있다. 모든 죄는 은밀하게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속삭이고 있다. 다가올 진노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끊임없이 불어넣고 있다. 모든 죄는 죄인에게 말한다. “너는 하나님께 잘못하였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실 수 없다.”

그리고 성령께서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죄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복수를 요청한다.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마음을 심판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다. 이런 상태의 영혼에게는 오직 한 가지밖에 도움이 될 수 없다. 곧 성령께서 회심의 순간에 보여 주시는 발견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양심이 요구하는 만큼 충분하고 완전한 화목제물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속죄는 하나님-사람 되신 분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영혼은 구주 전체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인격 전체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과 고난의 공로와 함께, 자신에게 제시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뿐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인격의 모든 행위와 모든 고난은 각 죄인의 형편에 정확히 대응한다. 그분은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을 무리를 위하여 구

원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각 사람의 개별적인 죄 하나하나까지도 상대하신다. 그리고 흘리신 생명을 각 죄의 열륙 위에 적용하여 그것을 지워 버리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던 것이다. 만일 내가 속죄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사람이심을 본다면, 나는 너무도 크고 광대한 제사를 보게 된다. 그 제사의 적용 범위는 너무 넓어서, 양심의 가장 깊은 틈까지도 모두 채울 수 있다. 그분은 단지 죽음으로만 우리의 평화가 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가되는 순종의 삶으로도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수록, 곧 하나님-사람 되신 분으로서, 모든 행위와 모든 고난 속에 무한한 적용 능력을 지니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수록,

왜 그분을 통한 평안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 인지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다.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곧 그분의 삶과 고난이 어떻게 나의 삶과 나의 죄에 적용되는지를 보자. 나는 내 본성의 죄를 고백한다. 원죄를 고백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을 본다. 그분은 “거룩한 분” 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거룩함이 되기 위해 태어나셨다. 그분의 죽음은 나의 잉태와 출생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태중에서부터 거룩하였다. 보라. 나는 이제 나의 대리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실 때,

죄악 가운데 태어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순결 가운데 태어나신 나의 대리자를 보신다. 나는 어린 시절의 죄를 고백한다. 나의 어린 시절과 젊은 날은 헛되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사람 되신 나의 대리자 안

에서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발견한다. 성경은 말한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나는 이 거룩한 어린 시절의 모든 공로를 받는다. 지혜로 충만했고, 어리석음과 경솔함이 전혀 없었던 그 어린 시절의 공로를 받는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죽음이 가진 속죄의 공로도 받는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첫째는 어린 시절의 죄에 대한 만족이다. 둘째는 율법이 그 당시에든 나에게 요구하였던 순종을 완전히 이루신 순종이다. 나는 내 생각의 죄를 고백한다.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그러나 나는 한 분을 발견한다. 그분은 죽음으로 나를 위한 속죄를 완성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드려야 했던 마음의 순종까지도 대신 드리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나는 내 말의 죄를 고백한다. 헛된 말, 악한 말을 고백한다. 성경은 말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그러나 나는 이 위대한 속죄 안에서, 내가 한 모든 헛된 말에 대한 형벌이 이미 지불된 것을 발견한다. 동시에 나는 그분 안에서 내가 드려야 했던 순종도 발견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입은 생명의 샘이었기 때문이다. “은혜가 그 입술에 부어졌으며” 그분은 언제나 거룩한 말씀만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를 위하여 형벌도 담당하시고, 순종도 이루신다.

나는 나의 의무들 가운데 범한 죄를 고백한다. 예를 들어, 성전에서 드린 형식적이고 부주의한 예배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나 나는 영화로운 나의 대리자가 나를 대신하여 회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모습을 발견한다. “예수께

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또한 나는 그분께서 성전 예배의 거룩함을 위하여 싸우시는 모습을 본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은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는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분이 드리신 찬양,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울으신 깊은 주의, 그분이 공적인 기도예 참여하신 모습, 이 모든 것이 내 계좌에 기록된다. 마치 내가 그것을 온전히, 그리고 항상 합당하게 행한 것처럼 말이다. 동시에 그분의 흘리신 피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 죄와 예배 가운데 범한 모든 죄를 지워 버린다. 나는 은밀한 기도를 게을리한 죄를 고백한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보증인을 본다. 그분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또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분은 이것을 나에게 전가해 주신다. 마치 내가 매일 낮과 밤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말이다. 동시에 나의 기도하지 않은 죄들은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버리신다.

나는 내 마음속 여러 죄를 고백한다. 내 영혼의 변덕스러움을 한탄한다. 나의 선함은 아침 안개와 같고 이른 이슬과 같다. 그러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이시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하시다. 나는 내 마음의 완고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자신의 부드러움을 내게 전가하신다.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향한 자기 영혼의 간절함을 내 것으로 삼아 주신다. 나는 고집스럽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다.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다.” 내 안에는 거짓됨이 있다. 그러나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이처럼 그리

스도 안에는 죄에 대한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드려야 했던 순종도 준비되어 있다. 죄를 덮는 속죄의 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옷감도 함께 짜여 있는 것이다. 조금 더 계속 적용해 보자. 내 영혼이 야망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무엇인가 되어 보려는 욕심, 스스로 높아지려는 계획 때문에 괴로운가? 그러나 나는 그분 안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는 분”

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의의 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신다. 동시에 자기 피로 나의 모든 자기중심적 야망을 씻어 내신다.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분에 대하여는 기록되었다. “그리스도 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나는 내 뜻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분은 내가 드리지 못한 바로 그 순종을 완전히 드리셨다. 내가 거부한 것을 그분은 드리셨다. 그리고 이제 그 순종을 나를 위하여 주신다. 동시에 내가 순종을 거부한 죄는 그분의 피 속에 완전히 감추어진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였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였다. 단지 세상의 물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보다 세상 자체를 더 좋아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 않으셨다.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신 적도 거의 없으셨다. 돈을 실제로 손에 쥐어 보신 적조차 거의 없으셨던 것 같다. 우리는 분명히 안다.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였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분은 나를 죄에서 씻으시면서, 동시에 자기 순종의 옷으로 나를 입히신다. 나는 종종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나 그분의 눈은 언제나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나는 일관성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사탄조차도 “그에게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분은 원수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 “너희 중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느냐?”

나의 교만과 거만함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한 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분을 발견한다. 그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자신에게 오라고 나를 초청하신다. 내가 배교하고 뒤로 물러난 적이 있는가? 그러나 나의 보증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길” 과 같았다. 그분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셨다.” 그분에게서는 결코 미지근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심이 너무도 뜨거워서, 어떤 때에는 친구들조차 “그가 미쳤다” 고 말하였다. 또 어떤 때에는 제자들이 시편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모든 적극적인 의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그분은 자기 의의 또 다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신다. 동시에 그 무한히 귀한 죽음을 나에게 적용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인의 순종을 받아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배교자로 고발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성령을 존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분은 성령에 대하여 가장 아름다운 말씀들을 하셨다. 그분은 성령을 “보혜사” 라고 부르셨다. 또 “진리의 영” 이라고 부르셨

다. 또 “거룩한 영” 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그분 자신도 성령의 인도를 기쁨으로 따르셨다. 성경은 말한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그분은 여기에서도 나의 성령 거역을 대신할 순종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진 것은 모두 나를 위하여 사용하신다.

오직 내가 그분의 인격 안에 감추어진 보화들을 알기만 한다면, 나의 위로는 넘쳐흐를 수밖에 없다. 나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의 보증인은 얼마나 감사가 충만하셨는가! 음식을 받을 때도 감사하셨다. 복음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 것을 감사하셨다. 성찬상을 감사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내가 깨뜨린 감사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순종을 발견한다. 동시에 갈보리의 희생 안에서, 나의 배은망덕함에 대한 속죄를 발견한다. 나는 영혼들을 향한 무관심을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 죄에 대한 치료책을 그분 안에서 발견한다.

그분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불타고 있었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노의 바다 속으로 뛰어드셨다. 그리고 그분의 속죄의 모든 과정 속에는, 형벌을 담당하는 것뿐 아니라, 순종도 함께 들어 있었다.

오, 그분 안에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함이 있는가!

우리 양심이 어떤 특별한 죄를 느끼고 있든 상관없다. 오직 언제나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보라. 적극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의의 옷을 발끝까지 입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바다가 모든 물결과 함께 밀

려오는 것과 같다. 그 의는 바다의 파도처럼 모든 만(灣)과 모든 물길을 따라 흘러 들어간다. 성경은 말한다.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처럼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은 영혼의 모든 필요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그리고 이 사실은 너무나 크다. 그 결과는 단지 부정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곧, 이러한 총명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영혼의 모든 떨림을 제거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을 가져온다. 그것은 마음속에 적극적인 기쁨을 부어 준다. 자연 속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볼 수 있다. 바람 한 점 없는 저녁이 있다. 나뭇가지의 잎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해는 마지막 빛을 고요한 숲 위에 비추고 있다. 바다는 수정으로 된 바닥처럼 잔잔하게 누워 있다. 이것이 자연 속의 평화이다. 이런 광경 속에 서 있으면, 마음은 단지 두려움이 없는 상태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적극적인 즐거움도 있다. 마치 그 풍경 전체 속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은혜의 나라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하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계실 때, 곧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때, 그분은 두려움을 잠재우신다. 그리고 불안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실 뿐 아니라, 항상 적극적인 기쁨과 복됨을 함께 가져오신다. 그 안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무엇인가가 있다. 무엇이 이런 적극적인 평안을 만들어 내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그분의 마음을 향한, 직접적인 사랑과 우정의 호흡이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을 제거하신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자기 자신을 들여오신다. 사랑으로 총만하신 자신을, 긍휼로 가득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상처의 진정한 치유가 아닌가? 우리의 상처는 무엇이었는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치유란 무엇인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

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평안이 참된 평안인지 항상 물어보아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단지 두려움이 없는가? 아니면 그분을 즐거워하는가?

단지 진노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는가? 아니면 평안을 주시는 그분 자신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역만을, 그분의 인격과 분리하여 바라본다면, 진노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분과의 회복된 교제를 즐거워하는 적극적인 기쁨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바울은 말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시선을 화평 자체가 아니라, 화평이신 그 인격께 고정시키기 위함이다. 그분은 참된 “여호와 샬롬” 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격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평안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진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증언을 한다. 그분을 더 많이 알수록, 영혼의 안식은 더욱 완전해진다. 반대로, 화평케 하시는 분의 인격을 직접 알지 못하는 평안은 얇은 평안이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인지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얇은 평안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받은 우리에게,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지 않겠는가? 사도 요한은 말한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다.”

그리고 곧이어 “새 계명”에 대하여 말한다. 그의 뜻은 분명하다. 빛이 증가한 만큼, 순종에 대한 요구도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특별히, 참빛이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순종의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평안을 얻고, 그분 자신을 통하여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세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평안에는 책임이 따른다. 더욱이 이런 구주를 통한 평안에는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집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해방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해방되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더욱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이런 평안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살아가라.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예수님 자신을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참된 평안을 누린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된다” 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평안은 반드시 순결한 평안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언제나 순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나오는 결과 역시 반드시 순결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당신을 날마다 그분 곁에 머물게 할 것이다. 그분의 일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그분의 눈빛에 인도받게 할 것이다. 그분의 미소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게 할 것이다. 누가 계속해서 그 구주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한 “하늘의 화평” 을 보면서도, 동시에 불순종의 섀길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만일 당신의 평안이 자신이 과거에 한 어떤 행동, 예를 들어 “나는 한때 믿었다” 혹은 “나는 믿는다는 행동을 했다” 와 같은 사실을 바라

보는 데서 나온 것이라면, 당신은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적인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다.

참된 평안은 죄인의 눈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생긴다. 곧 “여호와 살롬”

이신 그분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생긴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의도적으로 거룩하신 분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한 것, 존귀한 것,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 곳마다 걸어 다니신다.

그리고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하여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걸으시는 길로 인도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곧 루디아와 간수와, 유오디아와 순두게와, 그리고 글레멘트에게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들이 이러한 거룩한 일들을 추구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어느 순간 이런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다. 그들이 잠시 동안 자신들의 화평이신 그분에게서 눈을 떼었다는 신호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던 그 깊고 풍성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제5장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영혼의 거룩함을 증진시키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진리는 그리스도 자신과 분리된 진리가 아니다. 그분과 떨어진 교리는 생명력을 잃는다. 오웬이 말한 것처럼, 샘에서 떨어져 나온 물이 마르거나 악취 나는 웅덩이가 되는 것과 같다.

또는 태양과 연결이 끊어진 광선이 즉시 빛을 잃는 것과 같다. 구약에는 이 주제를 보여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예표가 있다. 그룹들(구속받은 성도들의 상징)은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 서 있었다. 그 속죄소는 매년 속죄일마다 피가 일곱 번 뿌려지던 곳이었다. 이 모습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분의 피가 있고, 그룹들의 발은 그 피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할 점이 있다. 그들은 피 위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속죄소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속죄소는 언약궤의 일부였다. 언약궤 전체는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였다. 곧 모든 복의 저장소 되시는 그리스도 말이다. 따라서 그룹들은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안식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도 안식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또한 그룹들은 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피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속죄소 자체와 언약궤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 이 구속받은 자들의 상징인 그룹들은 날개를 펼쳐 피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피만 덮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속죄소와 언약궤 전

체를 덮고 있었다. 마치 어미 새가 둥지 속 새끼들을 보호하듯, 자신들의 기쁨과 관심이 온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양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는 언약궤 전체가 그들의 사랑의 대상임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아마 더 깊은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언약궤 위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언약궤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룹들과 속죄소는 모두 하나의 금덩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단지 그들이 이 대상을 바라보는 것만 보여 주신 것이 아니다. 그들과 속죄소의 연합도 보여 주셨다. 곧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완성된 사역과 시작된 영광의 모든 열매를 함께 누리는 모습을 보여 주셨다.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연합은 모든 신자의 실제적인 사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연합을 의식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욱 실제적으로 알게 된다. 그래서 성찬은 매우 중요하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은 풍성한 축복과 거룩한 암시로 가득한 예식이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인격으로 데려간다. 왜냐하면 성찬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된다. “내가 연합된 이분은 누구신가?” “나의 남편 되신 이분은 누구신가?” “세상의 어떤 남편보다도 더 깊이 나의 것이 되신 이분은 누구신가?”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분의 능력의 손은 얼마나

강한가?” “그분의 소유는 얼마나 풍성한가?” “그분의 사랑의 증거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분의 영광은 지금도 내 눈앞에서 빛나고 있는가?” 구약의 언약궤와, 신약의 성찬이 계속 우리 앞에 두고자 하는 이 위대한 진리는, 역사상 거룩함 가운데 성장한 모든 성도들의 추구 대상이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완전히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이 길을 걸으려 하였다. 웨일스의 하월 해리스는 말년에 특히 그러하였다. 젊은 시절에는 시내산의 두려움을 많이 묵상하였지만, 말년에는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였다. 그는 한 친구에게 이렇게 썼다. “그분의 영원한 신성과, 그 무한한 인격과 사랑과 순종과 고난을 단 한 번만 바라보아도 수백만 개의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는 어떠한가? 베일이 점점 벗겨지고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의 영광이

점점 더 밝게 보이고 있는가? 오 형제여, 그 사람은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 자신을 얼마나 놀랍게 보여 주시는지!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시고, 피곤해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담당하시기에 입을 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돌 같은 마음이 녹지 않겠는가? 형제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위대한 신비 안으로 더욱 담대히 들어가라.” 분명한 사실이 있다. 성도의 성품은 주님의 인격을 많이 묵상할수록 더욱 부드럽고 성숙해진다. 또한 그렇게 할수록 의무감은 더욱 살아난다.

사랑과 감사도 더욱 뜨거워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살아 계신 구주와 직접 접촉하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도, 그것만으로는 영혼을 충분히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다르다. 그때 양심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인다. 실제로 모든 신자는 어느 정도는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상대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더 깊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경험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거룩함은 더욱 뜨거워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평온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은혜를 샘에서 직접 받아 마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샘은 예수님의 깊고 고요한 영혼이다. 따라서 사람마다 삶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 가는 정도도 달라진다. 그 차이는 결국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한다.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아는 것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잘 모른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이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을 생각하는 대신, 예수님 자신을 직접 상대해 본다면 말이다.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어 있다. 그러나 그 보화는 그 교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 어떤 철학자는 다른 주제를 설명하며 이런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여기에도 잘 적용된다. “어떤 사람은 스무 해 동안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믿고 살아간다. 그런데 스물한 번째 해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이 믿어 온 것 안에 얼마나 풍성한 실체가 있는지를 발견한다.” 그는 단순한 사상에 한 인격을 더하게 된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진리이신 분에 대한 지식으로 바꾸게 된다. 의견을 가지고 사는 삶에서, 살아 계신 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옮겨 가게 된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보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을 세 가지 방식으로 자라게 한다. 그것은 1. 교제(Communion)로 이끈다. 2.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삶을 실제로 느끼게 한다. 3. 그분을 본받게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1.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의 인격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게 된다. 믿음은 우리를 그분 곁에 세운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 준다. 마침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분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진리의 빛을 쬔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이러한 묵상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방법이다. 성령께서는 준비된 우리의 마음 위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새겨 넣으신다.

사무엘 러더퍼드는 유배 생활 동안 바로 이런 교제를 지속적으로 누렸다. 그는 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였다. 그래서 하루가 짧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다.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운 교제를 추

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자라나는 교제를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휘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겹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의 끝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깊이 파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그분을 위하여 떼어 두십시오. 그분은 수고하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아가서가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가서는 바로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어진 책이다. 그 책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직 희미하게만 보이던 시대였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미 그때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교제를 가르치셨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하겠는가? 우리는 신랑 되신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셨다. 그렇다면 더욱 이 교제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이런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므로 병이 들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특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요한은 말한다.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인 교제였다. 제자의 영혼과 스승의 영혼 사이의 교제였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누렸던 교제는 아가서에 묘사된 사랑의 교제와 다르지 않았다. 2.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삶을 실제로 느끼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격적으로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삶을 더욱 실제로 느끼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의 삶”은 두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는,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신 33년의 삶이다. 둘째는, 지금 하늘에서 계속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그 끝없는 생명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연결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기 때문이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동정을 읽는다.

그분의 눈물을 읽는다. 그분의 자비를 읽는다.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읽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읽고 또 읽는다. 결코 싫증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네 복음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다. 거기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밀을 거두어들인다. 곧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를 엿보게 된다.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받으신 고난, 그분이 느끼신 감정, 그분이 품으신 생각, 그분의 침묵, 그분의 말씀, 그분의 여행, 그분의 쉬, 그분의 기도, 그분의 손길, 그분의 부르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사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백합화 가운데서 먹이시는” 그분을 따라간다.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뛰고 있는 그분의 심장 소리를 느끼고자 한다. 마치 대제사장 아론 곁에 서 있는 사람이 그의 흉패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슴 위에 자기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성경은 말한다.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분께 나아간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무덤에서 나오시던 날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발견한다. 그 공로 역시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우리는 그분이 자기 포도원을 매 순간 물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얻어 내신다. 그분의 하늘에서의 삶 역시 이 땅에서의 삶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삶이다. 보라.

그분은 밤낮으로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분은 회심의 날 우리 손에 축복의 잔을 쥐여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 잔을 계속 우리 손에 쥐여 주고 계신다.

우리가 그 새 포도주를 쏟지 않도록 붙들어 주고 계신다.

우리가 떨리는 비둘기처럼 바위 틈으로 도망쳐 왔던 그날, 그분은 우리를 거기에 숨겨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안전하게 숨겨 두고 계신다. 그분은 한 번 우리 죄를 지워 버리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 그 죄의 기록이 다시 나타나지 못하도록 계속 지키고 계신다. 그분은 한 번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 지금도 계속 그 옷을 입혀 주고 계신다. 땅과 지옥에서 불어오는 모든 폭풍 속에서도 말이다. 그분은 한 번 우리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그 죄를 덮고 있는 깊은 바다가 결코 마르지 않도록 지키고 계신다. 그분은 한 번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

모르드개가 아하수어로 왕 앞에서 얻은 명예보다 훨씬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일하고 계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낡아지지 않는다. 그분께 의지해야 할 이유도 결코 과거의 일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매일매일은

처음 회심하던 날의 반복과도 같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에 매일 새로운 추진력을 준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은혜의 식물들의 뿌리에 물을 주시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동시에, 아론 곁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이 그의 옷에 묻어 있는 기름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중보자 되신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한량없이 거하시는 모습을 본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본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인격 위에 머물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룩함의 무한한 저장소를 발견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을 한량없이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받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 성령은 언제나 구주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 자신도 무한한 사랑과 아름다움이시다. 우리 같은 영혼에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가!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우리가 더 알고 싶어 하는 바로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신다. 우리는 마치 그분의 옷자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는 것 같다. “주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셨으며, 심지어 반역자들을 위하여도 받으셨다.” 3. 그분을 본받게 한다 오래전 오리겐은 이렇게 말했다. “믿음은 그 사람이 믿는 대상과 영적인 교제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대상과 닮은 마음이 생겨난다.

그것은 결국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상처만 바라보지 않는다. 그분의 거룩한 발자취도 바라본다. 그리고 단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본받고자 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은혜로 새 눈을 얻은 영혼은, 자기가 바라보는 선한 것을 닮아 가게 된다. 마치 광택을 잃었던 다이아몬드가 정오의 태양빛을 반사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예수님의 인격을 많이 바라볼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아 간다. 진정한 거룩함이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물론 먼저 그분이 우리를 씻어 주시고, 속죄의 은혜 안에서 죄책을 제거해 주신 후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흉내 내기가 아니다. 감사에서 나오는 모방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은인 곁에 오래 머무를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고 싶어진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본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자 한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태도, 그분의 마음을 닮고자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하여도 오셨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깊이 바라볼수록, 이 말씀은 더욱 실체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완벽하게 살아 내신 한 인격을 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겸손에 대하여 설교만 하지 않으셨다. 겸손 그 자체로 사셨다. 그분은 사랑에 대하여 말씀만 하지 않으셨다. 사랑 그 자체로 사셨다. 그분은 용서에 대하여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원수들을 용서하셨다. 그분은 순종을 명령만 하지 않으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이렇게 말하게 된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것은 억지 의무감 때문이 아니다. 사랑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닮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한다. 제자는 스승을 닮고 싶어 한다. 신부는 신랑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한다. 이것이 성화의 가장 깊은 원리이다. 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 그러나 성경은 주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기 쉽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변화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아 간다. 세상을 오래 바라보면 세상을 닮는다.

죄를 오래 바라보면 죄에 익숙해진다. 자신만 오래 바라보면 자신에게 갇히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오래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닮아 간다. 그래서 사탄은 가능한 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어 놓으려 한다. 반대로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단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보여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참된 성화는 규칙을 많이 배우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는 점점 더 온유해질 것이다. 점점 더 겸손해질 것이다. 점점 더 인내하게 될 것이다.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 배어들기 때문이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자기 얼굴이 빛나는 줄 알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아 간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느끼게 된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다.

억지로 만들어 낸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경건 말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마음을 끝없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라. 그분의 순종을 바라보라. 그분의 눈물을 바라보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라. 그분의 중보를 바라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 뒤에 계신 살아 계신 그분 자신을 바라보라. 거기에서 거룩함이 자란다. 거기에서 사랑이 자란다. 거기에서 순종이 자란다. 거기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깊이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한 가지를 더 배우게 된다. 그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것은 참된 성화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하나이다. 처음 회심

한 사람은 흔히 자기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가진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믿음, 자기의 확신, 자기의 성장, 자기의 실패를 계속 바라본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오래 바라본 성도는 달라진다. 그는 점점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더 관심을 갖게 된다. 그는 자신의 눈물을 세는 일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일을 더 좋아하게 된다. 자신의 기도를 측정하는 일보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생각하는 일을 더 좋아하게 된다.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일보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더 좋아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다. 그는 점점 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 된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단지 사역의 원칙만이 아니다. 모든 성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원칙이다.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점점 밝아지고, 나는 점점 그 빛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가장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을 잊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하다. 천국이 행복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천국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장소가 아니다. 어린양을 바라보는 장소이다. 성도들은 영원히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결코 싫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도 끝이 없다. 그분의 지혜도 끝이 없다. 그분의 아름다움도 끝이 없다. 그분의 영광도 끝이 없다. 그러므로 영원 속에서도 성도들은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묵상은, 사실상 천국의 예행연습이다. 우리는 지금도 어린양을 바라본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어린양을 바라볼 것이다. 차이는 단 하나이다.

지금은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볼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능한 한 많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묵상해야 한다. 그분을 연구해야 한다.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분의 행적을 살펴야 한다.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영혼의 건강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거룩함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기쁨의 비결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천국을 미리 맛보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 성도여.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바라보라. 그분 안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영광이 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랑이 있다. 아직 누리지 못한 평안이 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은혜가 있다. 그분은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

제6장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보는 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재림 소망에 미치는 영향

영혼이 은혜 안에서 자라 갈수록, 그 상태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육신에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니라.” 그러나 동시에, 참으로 사도적인 거룩함을 가진 영혼이라면, 바울의 또 다른 고백도 함께 하게 된다.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즉, 그 영혼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영광을 사모한다. 그러나 동시에, 몸을 떠나 즉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더 작은 복도 간절히 원한다.

1. 중간 상태의 가장 큰 복 중간 상태(죽음과 부활 사이)의 가장 큰 매력, 사실상 유일한 매력은 이것이다. 거기서 구속받은 자들은 주 예수님을 본다. 그분 자신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천국이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은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아직 부활의 영광을 입은 상태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들은 제단 곁에 있다. 거기서 땅 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부르짖는다.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공의가 만족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한 분이 다가와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또 말씀하신다.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은 그 흰 옷을 입고 안식의 자리로 인도된다. 이사야가 말한 그

쉽의 자리로 말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외적 행복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가지를 강조한다. 그들의 안식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안식의 연속이라는 사실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은 마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식하고 있다. 마치 잔치 자리에 기대앉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 성도가 죽는 순간, 그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중간 상태의 행복의 본질이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이것뿐이다. 순교자 스테반처럼, 떠나는 영혼은 예수님의 손에 맡겨진다. 천사들이 그 영혼을 몸에서부터 받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안내자일 뿐이다. 곧바로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기쁨과 모든 활동은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 이상을 거의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사랑하는 아들의 인격 위에 고정시키려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곳에 도착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복 있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주님과 함께 쉰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본다.

그들은 이제 “물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 으로 갔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친히 앉아 계신 곳이다. 곧 아버지 우편이다. 그 산기슭에서 그들은 가장 복된 안식을 누린다. 그분을 바라본다. 그분과 교제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틀 때와 그림자가 사라질 때” 를 기다린다. 그들은 “낙원” 에 있다고 불린다. 그 낙원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광의 하늘 가운데 특별한 장소이다. 왜 하필 낙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가? 그곳은 둘째 아담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에덴동산 안에 특별한 낙원이 있었던 것처럼

럼, 하늘 안에도 특별한 낙원이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새 예루살렘과 같은 장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이름은 분명히 말해 준다. 타락 이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곳에 거하는 행복한 영혼들은 마치 타락 이전의 아담과 같다.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 되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의 인격을 사랑하고, 그 인격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와 가장 가까운 상태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이미 떠나간 성도들과 가장 가까운 공감을 누리고 있다. 특히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총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더욱 그렇다. 우리가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순간도 바로 이런 때이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자비의 자리, 그 언약궤와 그 안의 모든 보화를 나의 것으로 붙들게 하실 때,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땅에서 떨어져 나와 천국의 문턱에 거의 들어선 사람과 같다.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죽음은 단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께 나아가는 문이 된다. 2. 재림의 복된 소망은 더욱 직접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인격에 고정시킨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중간 상태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주님의 인격에 고정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의 영광은 너무도 크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 자체로도 놀랍지만, 우리의 눈을 철저히 주님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든다.

성도가 “복된 소망과 크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자주 묵상하게 되면, 그의 영혼은 아직 오지 않은 영광의 빛을 멀리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마치 시인이 노래한 새와 같다. 새벽을 알리는 새는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노래한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점점 더 높이 날아오른다. 마침내 “아직 떠오르지 않은 태양의 빛이 그 가슴에 비치기 시작할 때까지.” 성도 역시 그렇다. 미래를 향해 마음이 들려 올라갈 때,

그는 장차 떠오를 더 좋은 태양,

곧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의 빛을 미리 받기 시작한다.

죽음의 순간에 성도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이다.” 그러나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그는 더 나아가 말한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마치 그 부활 아침의 햇살이 벌써 지금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 그날에는 어린양 되신 주님께서 친히 각 성도를 무덤에서 이끌어 내실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회심의 순간, 그들이 세상이라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를 보았다. 그리고 첫째 부활의 날에는 다시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한 얼굴이 아니다.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얼굴이다. 그때 어린양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신다. 성경은 말한다.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이것은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생각을 영원히 주님 자신에게 고정시킬 것이다. 그분은 여전히 그들의 태양이다. 그분으로부터 빛과 생명과 기쁨이 흘러나온다. 그

빛은 그분의 고난에 합당한 빛이다. 그분의 눈물에 합당한 빛이다. 그분의 탄식에 합당한 빛이다. 그분의 무한한 공로에 합당한 빛이다. 왜 우리는 그날을 그토록 소망하는가? 사도 요한이 대답하게 하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또 바울이 대답하게 하라. 바울과 글레멘트와 에바브로디도, 가이사라에 속한 성도들과, 그가 알던 모든 신자들은 그날을 무엇보다도 주님 자신 때문에 기다렸다. 그들은 그날의 승리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종려나무 가지나, 면류관이나, 흰 옷이나, 할렐루야의 환호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그날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 자신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였다.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이다.” 또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는 무엇을 약속하는가? “여호와께서 네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실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몇 마디 안 되는 말씀 속에 측량할 수 없는 영광과 복이 담겨 있다. 그리고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영혼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준다. “네 눈이 왕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보다 더 높은 소망은 없다. 네 눈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흐릿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눈이 부셔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맑고 평온한 기쁨 가운데, 끊임없이 “왕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산의 날에 대한 약속이다. 예수

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 있던 사람들이 왜 그토록 놀라며 달려왔는가? 그분의 몸에 아직 남아 있던 영광의 빛 때문이 아니었는가?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사십 일을 교제한 뒤 얼굴에 광채를 지녔던 것처럼 말이다. 그때는 아직 슬픔의 구름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분의 참된 아름다움을 완전히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그 정도였다면, 장차 “네 눈이 왕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는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날은 어떠하겠는가? 당신은 하늘을 바라보며 자주 시선을 머무르게 하는 제자인가? 마치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헛되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반드시 “네 눈이 왕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당신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전능자의 동료” 이시며, 동시에 참된 사람이시다. 스가랴는 그분을 “전능자의 동료” 라고 부른다. 히브리서는 아버지께서 그분을 “하나님” 이라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을 향하여는 “그의 동료들” 이라고 말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시다. 그날 우리는 그분의 인간적인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얼굴은 이제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을 것이다. 그 얼굴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떤 행복이 있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된다. 그것은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 신성이다.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만족스럽고, 너무도 매력적이어서, 그 기쁨의 노래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 당신은 지친 순례자인가? 그렇다면 조금만 더 걸어가라. 계속해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을 바라보라. 곧 “왕의 아름다움” 을 보게 될 것이다. 의로운 듯처럼 날마다 세상의 죄악을 보고 괴로워하였는가? 죽음이 가정을 휩쓸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였는가? 한밤중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위로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눈물 속에서 겨우 희미하게만 보았는가? 휘장 너머의 영광을 잠깐 엿본 것 같다가도, 곧 다시 세상에 눈길을 빼앗겨 실망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용기를 내라. “네 눈이 왕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당신의 천국은 바로 이것이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아시는 것처럼, 당신도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다. 밧모섬에서 고난받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수많은 약속을 주셨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상급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모든 약속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혼을 만족시키는 약속은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놀라운 약속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님은 더 큰 약속을 덧붙이신다.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분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 이라고 부르신다. 긴 밤이 끝난 뒤, 끝없는 날의 시작을 알리는 별.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날의 가장 큰 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주님은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영광, 그리고 신성의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과 위엄이 완전히 드러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실 것이다. 만일, 성도여, 우리가 이 책 전체를 통하여 계속 말해 온 바로 그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오심의 날을 더욱 사모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바로 그날, 우리는 그분을 가장 총만한 영광 가운데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의가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분 자신이 우리의 완전한 구속이 되실 것이다. 오래전에 이미 그 다윗의 망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무기고와 함께 말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성에 실제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성은 왕의 위엄과, 하늘의 영광과, 창조 세계의 모든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나가는 행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주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내 것이다.” “그 모든 영광을 입고 계신 그분은 내 것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저분은 내 것이다.” “아버지께서 영원히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은 내 것이다.”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 전망은 현재의 삶을 얼마나 작게 보이게 하는가!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에도, 그 영광은 이 소망 앞에서 빛을 잃는다. 야망은 우스워 보인다. 탐욕은 어리석게 보인다. 고난은 가벼워진다. 의무는 쉬워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것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도, 그분의 기쁨이 가장 충만한 날에, 그분의 평화가 가장 충만한 날에, 그분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난 날에 말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날 드러날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그날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더욱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에 집중된다.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였다.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다시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장차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곧 다시 낮아지신 그분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다. 베들레헴의 아기에게로, 갈릴리의 사람에게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다시 그 영광의 주님께로 올라간다. 이 두 모습은 서로를 더욱 빛나

게 만든다. 낮아지심은 영광을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영광은 낮아지심의 사랑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분 자신을 바라보는 자세 속에 머물게 된다. 새로운 복음은 결코 필요하지 않다. 영원토록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재림은 그 복음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펼쳐 보이는 사건이다.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사야가 말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차린 잔치”

는 결국 그리스도의 인격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을 가리킨다. 새 하늘의 아름다움도, 새 땅의 풍성함도, 천사들의 노래도, 하늘의 수금 소리도, 결국은 모두 잊혀질 만큼 한 가지가 압도적일 것이다. “왕의 아름다움.” 그분 자신이 모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날 성령께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베일이 남아 있지만, 그때에는 베일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이다. 완전히 드러난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더 이상 거스르지도 않고, 더 이상 근심하게 하지도 않는 성령께서 계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처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실 것이다. 현재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 주신다. 그러나 지금은 물방울처럼 보여 주신다.

그날에는 넘치는 기름 부음처럼 보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주인의 기쁨”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 눈에 비늘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땅의 안개도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이다. 영원의 날들은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결코 그분을 바라보는 일에 실증내지 않을 것이다. 마치 독수리가 한낮의 태양을 응시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끝없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수많은 시대가 지나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인격에서 비추는 빛을 받아들인다.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는 지금 어린양의 영광을 바라본다.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영원 전부터 사랑이 거하던 그 마음,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이 거할 그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제 영원은 이미 시작되었다. 시간의 해안은 오래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끝없는 샘이 되신다. 영원은 단지 한 가지 일을 한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날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었는지를 점점 더 알게 해 줄 뿐이다. 복음은 여전히 “영원한 복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그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그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오직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내가 그를 알고자 한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존 오웬은 생애 최고의 세월 가운데 일부를 《그리스도의 인격(The Person of Christ)》을 쓰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시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 묵상(Meditations on the Glory of Christ)》을 출판 준비하였다. 그가 죽던 바로 그날, 한 친구가 와서 그 책이 인쇄에 들어갔다고 알려 주었다. 오웬은 기뻐

하였다. 그러나 곧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내가 오래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왔소. 이제 나는 그 영광을,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보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될 것이오.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만큼 보게 될 것이오.” 오 성령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시거나,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이렇게 그분의 인격과 영광을 묵상하고 있다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소서. “형제여,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왔습시다!”

부록: 옛 저자들의 글에서 발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단지 약속 자체에만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인격 위에 믿음을 두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도록 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게 하셨다.” — 킬링해스트(Tillinghast), 《여섯 편의 설교》, p.9

“구원하는 믿음은 본질상 단순히 어떤 증언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들이고 그분 위에 안식하는 것이다. 죄와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이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이다.” — 커드워스(Cudworth), 《신앙 체험》, p.10

“교리문답 체계 속에서 믿음의 형식적 대상(formal object)을 그리스도의 인격보다 약속에 두었던 신학자들은,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표현에 있어서는 잘못을 범하였다.” — 스퍼스토우(Spurstow), 로마서 6장 주석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직분들로부터 유익을 얻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에게 나아가야 한다. 사람들은 종보자의 인격에게 직접 나아가기 전에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 용서는 달콤하다. 양자 됨도 달콤하다. 은혜도 달콤하다. 천국도 달콤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달콤하다.” — 웹스터(Webster), 설교집, p.88

“믿음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뭉과 유익과 특권에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결합시킨다. 물론 영혼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실제로 처음에는 대개 그것들을 먼저 보게 된다. 그러나 영혼은 반드시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바라보고 그 위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마땅히 되어야 할 만큼 바르고 완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계시의 거대한 샘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 그분의 인격과 결합하게 된다.” — 피어스(Pearse), 《최상의 결혼》, p.160 사무엘 러더퍼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큰 기쁨을 누렸기에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들을 남겼다.

“거룩함 자체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생명나무의 꽃과 향기가 생명나무 자체는 아니다.” (서신 335) “그분, 바로 그분 자신이 천국보다 더 뛰어나시다. 오, 이 사랑의 샘 곁에 앉아 마시고 노래하며, 노래하며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는가!” (서신 288) “내 가장 큰 고통은 그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나 위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가까운 연합과 교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맡겼다. 그분 자신을 얻기 위함이다.” (서신 187, 112) “나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에 머무르기보다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사랑과 공홀이 거하는 곳, 곧 그분의 심장 곁으로 가고 싶다.” (서신 286) “오, 내가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는 만큼 그분 자신을 기뻐할 수 있다면!” (서신 160) “나는 위로와 감각적인 기쁨과 달콤하게 느껴지는 임재를 우상처럼 사랑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싶다. 이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신랑의 왕 같은 옷과 금반지와 팔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 자신은 그 모든 장식보다 훨씬 더 귀하다.” (서신 168) “비교가 가능하다면, 나는 그리스

도와 천국 자체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서신 111) 또 하나의 예를 들자. 약 100년 전 로메인(Romaine)은 요한일서 2장 13~14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고 믿음이 약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견고한 지식에 곧바로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 로메인, 《믿음의 삶》, p.159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날마다 살아 계신 구주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과, 그분이 가져다주신 구원에만 만족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붙든다. 그러나 더 성숙한 믿음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붙든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유익을 사랑한다. 그러나 가장 깊은 믿음은 그리스도 자신을 사랑한다. 이 책 전체가 강조해 온 핵심도 바로 이것이다.

복음은 단지 그리스도의 사역(work)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Person)을 가리킨다.

*영어원서 (eBook) <https://tinyurl.com/3xz5r6ry>